

R A O N A T T I



말레이시아 의 중심에서 ☆ 라온아띠 를 외치다 🤚❤

Malay RaonAtti 팀 의 4 번째 소식지
현 예 지 노 민 영 권 혁 배 황 인 실 이 은 솔

글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권혁배 팀원

- YRJS를 다녀오다,
- 다시 다녀온 베타니 홈,



황인실 팀원

- Y Youth와의 유쾌한 시간,
- 켄지 콘테스트를 응원가다,
- 바쿠테 이야기
- 월드컵 16강을 함께하다,



현예지 팀원

- Deaf school 프로그램
- Sign Language Class



이은솔 팀원

- HH-camp 준비상황
- Deaf Leader와의 만남



노민영 팀원

- Durian Farm에 다녀와서
- 문화교류의 밤 준비과정
- 아프지마 Erin~!



편집자의 글

- 피터팬은 죽지 않는다.



M
E
M
B
E
R
S



Y R J S를 다녀오다,

by



- YRJS 는 [PERSATUAN KEBAJIKAN KANAK-KANAK CACAT YEE RAN JING SHEH] 의 약자로 말레이시아의 장애우 생활 시설 중 하나인데 수십 명의 장애 우들과 소수의 스텝들이 있는 작은 시설이다.
- 폐낭 Y에서의 생활 첫 주, 우리는 처음으로 YRJS를 방문하였다. 말레이시아의 평범한 가옥 구조 두 채에서 남녀가 따로 생활하는 그들은 10대에서 50대 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로써 대부분이 가족들로부터 버려진 상태라고 한다.
- 내가 방문했을 때 무엇보다 놀란 점은 4,50명의 장애우들 중 십여 명이 헝겊 끈이나 사슬로 묶여있는 모습이였다. 시설을 개방할 때는 자해나 공격성향을 통제하기 위해 약을 복용하는 장애 우들의 경우 약의 효과가 떨어지면 소수의 스텝들이 통제할 수 없기에 어쩔 수 없이 묶어놓는다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사실 베타니 흙을 처음 방문했을 때 책임자인 자야신으로부터 '말레이시아의 장애인 복지 현실은 이와 같은 곳도 있을 정도로 열악하다.' 말로만 들었던 것을 현실로 직접 보고 겪게 되니 안타까움이 온몸으로 전해졌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중증의 장애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어 어떤 이는 심한 지체장애에 시각장애까지 있기도 하고 어떤 이는 생각조차 할 수 없이 생명만 유지하는 상태라고 한다.

Y R J S를 다녀오다,

by



- 폐낭 Y에서 우리가 준비하는 큰 행사 중 하나는 '문화교류의 밤,' 으로 이 행사는 우리가 말레이시아 폐낭Y 유스들과 직접 행사를 기획준비하고 개최하여 거둬들인 모든 수익을 폐낭의 중국계 장애시설 기관인 YRJS의 장애우들의 집을 위한 기부활동으로 쓰도록 하는 것이다.
- 하지만 우리가 이들을 위해 무얼 할 수 있을까? 이미 문화교류의 밤에 대한 기획부터 준비까지 실질적으로 다 폐낭 YMCA에서 하고 있고 우리는 몇 개의 공연만 준비할 뿐인데 그조차도 우리의 부족한 몸과 마음으로서는 벅차기만 하다.
- 우리가 하는 일들이 정말 이들에게 도움이 되기는 하는 것일까? 아시아의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 왔다는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에어컨 냉기가 가득한 호텔방에서 지내며, 어느 전문가 못지않은 높은 수준을 보여주는 이곳의 스텝들에게 보살핌을 받으며,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한정되게나마 준비되어있는 이 상황에서조차 무력하기만 한 현실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참 막막하기만 하다.
- 한국에서는 자유롭게 두고 멀리서 바라봐주고 있는데 그 기대는 어떤 것이며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성과란 대체 무엇일까? 이러한 고민이 우리를 성장시켜주고 우리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진실이기를 간절히 바라며 YRJS의 아이들을 만날 준비에 대해 생각해봐야겠다.

다시 다녀온 베타니 홈. by



- 베타니 홈에서 이번에 아동 연령대의 장애 우들을 위해 준비하는 25회 핸디캠프에 대한 사진 촬영 도움을 요청 받아 잠시 폐낭 YMCA의 떠나, 2개월의 향수가 묻어 있는 베타니 홈에 다시 가게 되었다.
- H/H 캠프의 준비를 알리는 보도를 위해 준비한 기자회견을 위해 캠프 첫날은 포기하고 둘째 날 찾아간 베타니 홈은 떠나있던 한달 동안 마치 시간이 멈추었던 것처럼 그대로 있었다. 다시 찾아온 봉사자에 대한 예우로 디렉터의 집에서 머물며 오랜만에 둘러본 베타니 홈에는 낯익은 얼굴의 봉사자들은 물론, 새로운 봉사자까지 함께해 여전히 많은 것들을 서로 배우며 기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 핸디캠프는 베타니 홈의 모든 스텝과 봉사자들 중에서 미리 자원한 사람들로 스텝을 구성하여 베타니 홈의 방학기간 중 진행된다. 아이들의 신변처리에 대한 모든 것들을 각 교실의 선생님들이 책임지며 자신들의 프로그램만을 진행하던 일상과 달리 캠프에서는 모든 봉사자들이 아이들의 보호자로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아이들 하나하나를 챙기며 함께 숙식한다.
- 도착한 둘째 날에는 수공예 활동이 진행되고 있었고, 나는 아이들의 그림 그리기를 돕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바쁜 와중에도 반갑게 인사하며 맞아주는 스텝들과 아이들을 보며 너무나 기쁘고 처음으로 아이들과 24시간을 함께하면서 얻게 되었던 새로운 경험 또한 많았다.

다시 다녀온 베타니 홈, by



- 아이들을 약물로 통제하는 것을 지양하는 베타니 홈에서 통제하기 어려운 발작을 일으킨 아이에게 진정제를 투여하는 것을 처음으로 보았고, 캠프 활동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많은 것들을 생각해보기도 하였다.
- 수공예 활동 후로 수영장에 물고기를 풀어놓고 잡기를 반복하는 활동이 있었는데 많은 아이들이 물고기를 잡으며 기뻐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러한 활동들이 아이들의 재활에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거칠게 잡고 풀어주기를 수 차례 반복해가며 죽어가는 물고기를 계속해서 잡는 모습에 마음이 편치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
- 셋째 날에는 로스트 월드라는 워터 테마 파크에 갔다. 마지막 날의 활동으로 좋은 장소이기는 했지만 왕복 4시간에 걸쳐 이동을 한 것에 비해 점심 먹고 나서 실제로 아이들이 물놀이를 즐기며 활동한 시간은 3시간도 안 되는 것이 참 안타까웠다. 더운 날씨의 말레이시아 특성상 하루 1,2개의 활동이 적당하다는 것을 이미 수 차례 경험을 통해 배웠기에 혼자 아쉬움을 달래야 했다. 발작을 일으킨 아이에게 물리기도 하고 아이들의 물장난에 카메라가 젖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아이들을 다시 만나서 함께 할 수 있던 기쁜 시간이었다.

Y Youtin과의 유쾌한 시간, by



- 폐낭에 온 이래로 라온아띠의 가장 큰 변화는 저희와 동고동락을 함께할 Youtin YMCA 친구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 20대 중반부터 30대 초반으로 구성된 폐낭 Youtin YMCA 친구들과의 인연은 우리에게 있어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정규적인 공식 석상에서의 시간은 물론, 그 이외의 자유 시간에도 그들과 함께하며 유쾌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 우리를 항상 보살펴주는 Winnie를 주축으로 노래 잘 부르는 켄지와 수줍음 많은 조이스, 운동 잘하는 켈빈과 귀여운 보조개를 가진 테디, 섬세한 에디슨과 꼼꼼한 베리, 한국말 잘 따라하는 Youtin 회장님 제이슨, 야무진 테스 등 친구들과 즐거운 인연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켄지 콘테스트 응원가다!, by



- 주말을 맞이하여 켄지가 참여하는 노래 콘테스트 파이널에 다 함께 응원하러 페낭 문화 회관을 방문하였습니다.

- 켄지는 노래 콘테스트의 싱어를 돕는 코러스 역할을 맡았는데 켄지의 팀은 마침내 작사상과 퍼포먼스 상, 금상! 총 3개의 상을 휩쓸며 최다 입상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 켄지의 팀도 인상 깊었지만 다른 팀 또한 멋진 노래와 퍼포먼스를 보여주니 파이널의 면모를 제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 콘테스트가 끝나고 다 함께 야식을 먹으러 고고 ~! 맛있는 음식과 즐거운 담소로 주말을 알차게 보냈습니다.

바쿠테 이야기,

by



- 페낭 YounIn가 소개한 맛집 중 바쿠테 (Bark Kut Tne)를 기막히게 잘 하는 집이 있다 하여 다 함께 바쿠테 야식을 맛보러 숙소를 나섰습니다.
- 바쿠테는 육골차 라고도 불리는 건강 요리입니다. 바쿠는 돼지갈비를 의미하고 테는 차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 한방 약재를 푹 우려낸 국물에 돼지갈비와 내장, 말린 버섯 등을 넣고 돌 냄비에 끓여낸 음식으로 우리나라 갈비탕과 살짝 비슷한 맛이 났고 고소한 국물이 무지 시원했습니다.
- 페낭 YounIn 친구들과 함께 한 야식이라 더욱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월드컵 16강을 함께하다, by



- 한국의 월드컵 16강을 향한 원정 첫 경기, 그리스 전을 폐낭 Youth와 함께 CF 카페에서 관람하였습니다.
- 말레이시아에서는 식사와 차를 함께 할 수 있는 곳을 카페라 부른답니다.
- 섬세한 에디슨과 베리는 한국을 응원하기 위해 붉은 티셔츠를 입고 나와서 놀랐고도 고마웠습니다.
- ☺ 폐낭의 Youth 친구들이 다 함께 한국을 응원해주고 주위의 많은 말레이인들 또한 아시아의 나라 한국을 응원하는 모습을 보니 고맙고도 뿌듯했습니다.
- 한국이 승리하여 라온아띠 어깨에 힘 좀 들어가니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Deaf school 프로그램, by



- Pusat Majudiri Staff Rañela는 Raonatti에게 Deaf School에서 Handicraft 프로그램 진행스케줄을 마련해 주었다.
- 두 번의 방문으로 진행되는 이 스케줄은 Primary School 아이들과 Secondary School 아이들을 그룹으로 나누어 색종이접기와 풍선아트를 교육하는 내용의 스케줄이다.
- 청각이 발달되지 않은 Deaf에게는, 오감 중 나머지 감각기관이 일반인들보다 발달되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과, Deaf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일반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보다 많은 경우의 수가 생긴다는 것을 알았기에, 걱정을 하며 프로그램 진행순서, 진행방식 등을 완벽하게 준비해서 학교로 갔다.
- 처음 Deaf School에 방문하여 Primary School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걱정했던 것 보다 아이들이 잘 따라주고, 선생님들도 많은 도움을 주셔서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이제, 7월 첫째 주에 다시 학교에 방문하여 Secondary School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 할 예정이다.

Sign language Class, by



- 한국에선 김수원선생님, KL에선 Josephin선생님과 함께였다면, Penang에서는 센스쟁이 Aaronel 선생님과 함께하는 수화교실!! :D
- Malaysia에 KLYMCA에서 한 달간 Basic Sign Language를 이수한 후 베다니 홈으로 이동하였고, 두 달간 베다니 홈에서 생활하면서 수화를 배울 기회가 없었던 우리는, 머릿속의 지우개가 Sign Language를 Visual Gesture로 깔끔하게 바꿔주었다.
- Penang YMCA로 이동 후, 7월 말에 진행되는 HH Camp를 위해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Sign Language Class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HH Camp Staff로 활동하기 위해, 기본적인 표현수화는 물론, Malaysia의 지명, 음식 Penang의 공공기관의 이름까지 수화로 배우고 있다.
- 아침 첫 스케줄이 Sing language class라 피곤할 법 한데, Aaronel선생님의 놀면서 배우는 수화는 우리에게 수화에 대한 친근감과 자신감을 키워주고 있다.
- Penang에서 2달간의 활동 기간동안, 우리는 매일 아침 Sing Language Class에 참여할 예정이고, 이 Sing Language를 배움으로써, Deaf School에서의 프로그램진행과 HH Camp 준비를 위해 Deaf Leader들과의 교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HH-Camp 준비상황 . by



- 페낭 Y에는 Pusat Majudiri Y가 있습니다. 이 곳은 Y의 농아인들의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 곳의 스템들로는 수화를 통역하며 농아인들의 일을 돕고 있는 Rañela, HH camp의 모든 진행상황을 맡고 있는 MeiMei, 아침마다 우리에게 수화를 가르쳐주는 Aaronel, YMCA에서 PMY 농아인 아이들과 함께하는 Yan이 있습니다.
- 우리가 가장 먼저 맡은 일은 HH camp때 쓰일 일정표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색종이를 잘라 붙이고, 예쁘게 꾸며 각국의 사람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예쁜 일정표가 완성되었습니다. 특히 인실 언니의 색종이를 잘라 붙여 그린 그림이 많은 느낌을 살려주었고, 예지가 일정표의 전체적인 틀을 짜, 함께 참여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 HH camp때 있을 여러 게임에 대한 조편성과 안내표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HH camp에 쓰일 여러 물품을 만드느라 매일같이 공작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 혁배오빠는 HH camp에 쓰일 동영상을 만드느라 메이메이와 매일 상의를 하며, 바쁜 하루를 보냅니다.
- 현재 우리는 Pusat의 농아인 스템을 도와 HH camp의 기본적인 요소를 갖추는 작업 중입니다.
- HH camp가 다가올수록 우리는 더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되겠지만, 그만큼 그 날을 기대하게 됩니다.

Deaf leader와의 만남. by



- 페낭에서 우리는 'HH camp-국제 농아인 캠프'의 스텝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HH camp는 페낭 Y 스텝들이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들과 소통하며 함께 일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우리와 그들의 설레는 첫 만남은 HH camp 프로그램 중 있을 어드벤처 게임을 함께 배울 때였습니다. 처음엔 이름도 모르고 어색했지만, 그룹활동도 하고, 서툰 수화로 대화도 나누며 몸으로 부딪히는 시간을 가지니 서로의 얼굴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 그 후, 농아인들이 직접 주도하는 캠프 준비회의와 신문기자와의 기자회견, 수영장에서 물놀이 사전게임 등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횡수는 점점 늘어갔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수화 이름을 알고, 우리도 그들이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을 알고 싶어하는 노력이 우리가 더욱 가까워질 수 계기를 만들어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라헬라가 라온아띠와 농아인들이 함께 일하는 것을 보며, 우리에게 그들과 소통하는데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존중하고, 우리가 나누는 대화를 의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함께할 수 있기에, 우리의 손으로, 그리고 몸짓으로^^ 더 많은 이야기가 나누어지길 바랍니다.

Durian Farm에 다녀와서, by



- Under the strong sunshine ,Saturday, we visited Durian farm. it's been a first time visited in actual by the group. some of members had a bit of worry about smell and eat.
- But one of the member, named Blaise, would like to eat Durian so much. Their faces were extremely different between each part. So it could be easy to compare with.
- Actually, the farm we visited were not commercial place that people can visit normally. By the require of HH-Camp leaders, the farm owner could accepted to visit.
- Entering main gate, we felt cozy. The house, owner have lived, looked antique and gorgeous. One of the Malay staff informed that was one of the Malay traditional house that had preserved well till that day.

Durian Farm에 다녀와서, by



- The moment visiting inside, we took many pics to memory. There was no air conditional system in the house. But the inside was cool to stay. After then, the time tasting.
- Durians was came that most of people really want. A family, one of the staff, were crazy at durians. In our group Jake and Pine tried,
- Otherwise Erin and estella were scary at durian. The other side, a farm owner explained kindly to people which one is fresh one and delicious.
- Most of interesting that we found were that each durian had different tastes. Most of people, included Blaise, enjoyed the time that could have a brilliant durians.
- After the party finished, people were satisfied with having durians. Meanwhile, the anties couldn't stand in the same place cause of smell.
- On the way back to YMCA, almost people slept in the car cause of fatigue. But everyone mention that they were very happy to have like good time in there.

문화교류의 밤 준비 과정. by



- 페낭 Y에 와서 처음으로 준비했던 프로젝트는 바로 'Cultural exchange night' 이었다.
- 행사 책임자인 winnie로부터 Y-Youth 멤버들을 소개 받고 그들과 한달에 걸친 행사 기획과 준비를 시작하였다. 그들과의 회의에서 그들이 행사를 기획하는 목적과 필요한 것들, 구성 파트에 대한 서로의 준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며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갔다.
- 말레이시아와 대한민국의 문화교류가 주된 행사의 '아젠다' 였기에 각기 나라를 대표하는 노래와 춤 공연들을 하나하나 보여주기로 합의 하였다. 우리 측에서는 춤(부채 춤, 태권 댄스), 노래(아리랑,붉은노을), 합동공연 ('imagine' 수화 song , Nobody 댄스)를 준비하였다.
- 행사를 준비하면서 말레이시아인들의 생활 습관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되었으며, 알지 못했던 그들의 노래와 춤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YRJG라는 장애인 시설기관을 돕기 위해 모금을 하는 것이 첫 목표였기에 팀에 미디어 담당인 Blaise는 장애인기관의 현실에 대한 동영상과 행사준비과정에 대한 동영상을 제작하였다.

문화교류의 밤 준비 과정. b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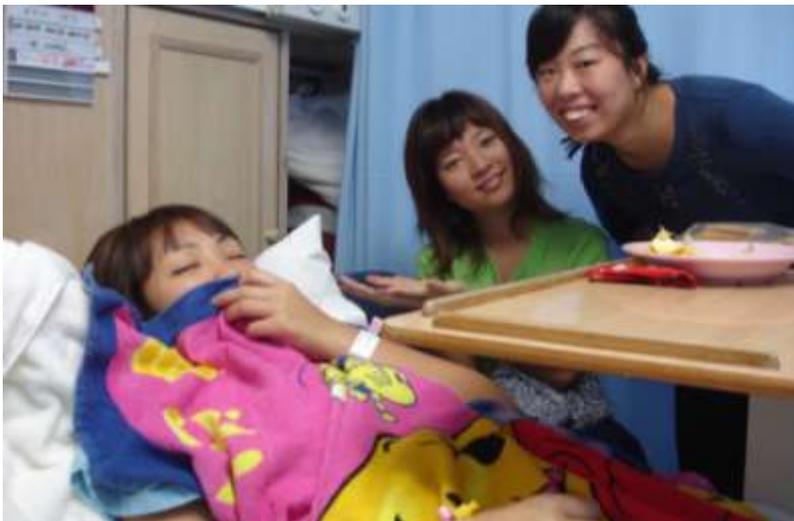


- 행사를 시작하는 7시가 되자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였고, 반가운 베타니 친구들도 참석해주었다. 우리는 한복을 입은채 사람들을 맞이하였고, 말레이 사람들 또한 우리의 차림새를 보며 추켜세워주었다.
- 30분 후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MC의 진행이 시작되었고, 우리는 우리가 맡은 파트에 대한 원활한 진행을 위해 대기실과 탈의실을 오가며 준비에 최선을 다했다.
- 노래와 춤, 프리젠테이션 등 보여줌에 있어 최선을 다하였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모양새 있는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다. 특히 농아 분들의 열렬했던 박수와 지지는 정말 잊을 수 없는 고마운 일이었다.
- 듣지 못하지만 우리의 노래가 끝나면 정상인보다 더 열심히 호응해주고 치켜세워주는 모습에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



아프지마~ Erin~!

by



- 최종 리허설 첫날 새벽, 팀원 'Erin'의 갑작스런 통증으로 인해 우리 모두는 잠옷 바람으로 병원에 'Erin'을 데리고 가 수술을 받게 하였다. 폐낭 생활에서의 정말 다행스러운 점 중 하나였던 것은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는 것이다.
- 말레이시아 생활에 어두운 우리 Y- youth 멤버인 Jason에게 새벽에 와 줄 수 있냐는 요청을 했고 그는 다음날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하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쏠살같이 와 긴급 상황을 도와주었다. 만약 그러한 친구들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러한 갑작스런 사고 앞에서 전전긍긍 대는 피치 못할 상황을 맞이했을 것이다.
- 많은 이들의 걱정과 도움을 빌어 'Erin'의 수술과 입원 수속을 마칠 수 있었고, 특히 한국 Y에서의 많은 걱정과 지침, 현지 Y의 물심양면적인 도움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고마운 것들이었다.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Erin'이 병실에서의 2~3일간의 입원 생활을 하는 동안 그 동안 잊고 지냈던 'Erin'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다.
- 현재는 병원에서 퇴원하고 요양하며 생활하는 중이다.

피터팬은 죽지 않는다.

by



- 7월이 시작되고 우리모두 돌아갈 시기가 왔다는 느낌의 변화가 하나 둘씩 찾아오는 때가 도래했다. 지난 시간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우리 스스로 때로는 같이 많은 시간 고뇌하며 때론 울기도 때론 짜증내기도 하였다.
- '불일치' 라는 팀의 적에게 낙다운이 될 정도로 점수를 허용한 사실에 대한 억울함이 무엇보다도 많았던 때였다. 전의를 상실할 때도 있었다. '다시 시작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조차 우리를 무겁게 하기도 하였다.
-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그 누구보다 많은 행운, 많은 코칭스태프와 헬퍼가 있었고 그들은 우리의 조금 이른 다운에 대해 그들이 제공해주었던 경험과 격려는 '다시 한번 해보자.' 는 용기가 필요한 우리에게 한척의 보약같이 힘을 주기 충분했다.
- 최근 '9회말 2아웃' 마지막 아웃카운트 하나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 하기.' 도 서로 마음을 다졌다. 서로가 다시 마음을 다잡은 만큼 하나하나의 행위가 진루타를 만들고 역전 홈런을 날릴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하며 오늘도 타석에 오른다.
- 피터팬의 열정으로 '젊은 대학생,라운아피의 할 수 있음.' 을 보여줄 차례다.
- '아자 아자 말레이시아 팀 이제 날아오르자!"

감사합니다.^^

